

News

가계대출 꺾였는데, 전세대출은 나홀로 4.2조 '쑥'...부실 번질까 우려

뉴스1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총 133조 9,080억원으로 전월비 5,073억원 증가... 신용대출과 일반주택담보대출의 감소세와는 대비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새롭게 전세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한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 위해 보증금 대출 필요하기 때문

집값 15억 넘어도 대출허용...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낸다

매일경제

정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금지 해제에 속도낼 것...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급락 추세를 보이자 시장 충격 완화 목적으로 본격 검토 이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 존재... 반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전월비 12.1%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 중

하나금융 연 26조 취약계층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 위해 연간 연 70만명에게 26조원의 금융지원 추진 우선 소상공인 취약차주 내 연간 35만명에게 약 19조원 금융지원... 청년 및 고령층,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 내 25만명에게 핀셋 금융 지원 3조원 규모 시행

은행 예대차 공시 얼마나 문제 많길래...한달도 안돼 손본다

매일경제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한달도 안돼 손보기로 결정... 은행권의 저소득 서민 공급 대출 많이 해도 이자 장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불만을 제기 착시를 막기 위해 햇살론을 뺀 예대금리차와 빼지 않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하기로... 평균의 함정 문제도 제기

삼성생명, 전이암 보장하는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배타적 사용권 얻어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 전이암 보장하는 암보험의 독창성 인정받아 한시적 독점 판매권 획득...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업계 최초로 공백없는 전이암 및 특정암진단특약 개발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 인정해 부여... 암 전이 관련 객관적 평가 지표 제시와 차별없는 보장

10월 영업 개시하는 카카오페이손보...자동차보험 진출 촉각

한국금융신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10월부터 영업 개시... 첫 상품으로는 금융안심보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니보험으로 DB 확보 후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 가능성 미니보험만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빅4사가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잡고 있다는 점이 장벽

CMA 가뭄에도 발행어음형은 관심 ↑ ... 대형 증권사 '방긋'

아주경제

증권사 CMA 잔액, 지난달 기준 64조 3,869억원으로 연초대비 6.81% 감소... 개인고객 CMA는 연초대비 8.19% 급감한 55조 6,198억원 수요 감소 원인은 증시 부진으로 인한 머니무브... 반면 발행어음형은 유일하게 잔액 증가해 연초대비 36.96% 증가... 기준금리 오르며 수익률이 개선됐기 때문

'디폴트옵션' 시대...퇴직금, 지키면서 벌어야 한다

이데일리

증권사들, 고용노동부의 관련 심의가 마무리된 10월께 실질적인 디폴트옵션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에 박차 가하는 중... 시장의 중추 되겠다는 의지 한국투자증권, 이미 TFT 구성해 상품 준비 중... 삼성증권, 고객 대상 디폴트옵션 펜션 포럼 개최해 준비나서... 고용부와 금융당국, 분기별 1회 이상 공시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